



즉시 배포용: 2015년 5월 14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패스트푸드 임금 위원회 최초 미팅 및 공청회 임시 스케줄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임금 위원회 의장인 Buffalo 시장 Byron Brown이 패스트푸드 임금 위원회의 임시 스케줄을 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Andrew Cuomo 지사의 [지시](#)로 주 노동부 장관 대행 Mario J. Musolino 커미셔너가 선임한 임금 위원회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조사하고 인상을 권고할 것입니다. 임금 위원회는 다음 3개월에 걸쳐 네 차례의 공청회와 추가 행정 미팅을 개최할 것입니다(모두 일반에 공개).

“최저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품위있는 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할만큼 벌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 약속을 복원하고 주 전역의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이 임금위원회로 뉴욕주는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을 위해 다가가고 있으며 우리는 올바르게 공정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리더를 전국의 모든 주가 따르기를 감히 원합니다.”

임금위원회는 네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증언을 취하고 추가 행정 미팅을 개최할 것입니다. 모든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노동부 웹사이트에 보관될 것입니다.

임금위원회는 첫 번째 행정 미팅을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75 Varick Street, 7th floor, New York City에서 개최할 것인데 290 Main Street, Buffalo의 지역사무소 회의실에 화상 회의로 중계될 것입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커미셔너의 설명을 듣고 공청회 일정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회의는 일반인 멤버들에게 공개됩니다; 단, 이 회의에서 공개 증언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위원회는 임시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것입니다:

- 2015년 6월 5일, Buffalo
- 6월 8일 주, New York City
- 6월 15일 주, Long Island
- 6월 22일 주, Albany

공청회에 참석할 계획인 분들은 일자와 장소가 확정되면 사전 등록이 요청될 것입니다.

뉴욕주 법률에 의거 임금위원회는 특정 산업 또는 직군의 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 또는 직군의 최저 임금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부문은 잘 확립되고 번영하는 수십억 달러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에서 수 만명의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데, 그 중 대다수가 여성, 가구의 일차 가장 및 복지 또는 기타 형식의 공적부조 수령자들입니다. 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은 7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커미셔너는 그 수령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명령을 발행할 것입니다.

미팅 문서 및 미팅 후의 비디오를 포함하여 패스트푸드 임금위원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labor.ny.gov/fastfoodwageboard에 있습니다.

증언 마감일

임금위원회는 모든 증언을 2015년 6월 26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임금위원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된 모든 증언을 고려할 것입니다. 서면 증언이 적극 권장됩니다.

서면 증언을 이메일로 wageboard@labor.ny.gov에 송부하거나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ATTN: Wage Board
Bldg 12, Room 586
Harriman State Office Campus
Albany, NY 12240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